<h1>나 혼자만 레벨업-42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y69c20c1c48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2화</p>  
<p>-평가액은 3백억 정도인데요, 완공되고 저희 길드가 들어가면 훨씬 더 뛸 겁니다, 형님. 참! 그때 공증하신 서류가 필요하신 거면 지금 팩스로 보내 드려요?</p>  
<p>"잠깐만."</p>  
<p>진우는 소리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휴대폰을 손바닥으로 막고서 물었다.</p>  
<p>"안 믿기시면 직접 바꿔 드릴까요?"</p>  
<p>안상민은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"아니, 됐다. 끊는다."</p>  
<p>-네, 형님.</p>  
<p>전화가 끝나고 보니 안상민의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.</p>  
<p>안상민의 눈동자가 연신 흔들렸다.</p>  
<p>'유진건설이 길드를 만들기도 전에 계약금으로 약속한 돈이 3백억? 그리고 회장 유명한의 차남 유진호가 꼬박꼬박 극존칭을?'</p>  
<p>안상민은 혼란스러웠다.</p>  
<p>"그, 그 저기... 그렇게 큰 금액은 제 권한을 벗어난다고 할까... 일단 시간을 주시면 길드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..."</p>  
<p>진우가 딱 잘라 말했다.</p>  
<p>"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."</p>  
<p>안상민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.</p>  
<p>힘없이 고개를 떨군 안상민이 머릿속으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.</p>  
<p>'결국은 정보 부족이다.'</p>  
<p>너무 일을 서둘렀던 것이 화근이었다.</p>  
<p>대박 냄새에 흥분한 나머지 조심성없이 움직였다.</p>  
<p>유진 쪽의 조건을 확실히 알아본 다음 길드의 지원을 받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다면...</p>  
<p>'일단은 길드장님께 보고해야겠다.'</p>  
<p>유명한 회장이 먼저 3백억을 제시한 헌터라면 5백억, 아니 1천억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?</p>  
<p>아직 늦지 않았다.</p>  
<p>'지원을 약속받고 성진우의 정보를 더 캐낸 다음 강하게 밀어붙인다면...'</p>  
<p>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"하나만 묻겠습니다."</p>  
<p>안상민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어느새 진우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이제 봄기운이 만연한데 어쩐지 주위가 으스스해진 느낌이었다.</p>  
<p>꼴깍.</p>  
<p>안상민이 마른 침을 삼킬 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.</p>  
<p>"저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?"</p>  
<p>"아... 아직은 저뿐입니다. 헌터님을 빠르게 모셔 오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느라 미처 위쪽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."</p>  
<p>사실 한 명 더 있긴 했다.</p>  
<p>자신의 부하 직원이자 오른팔인 현기철.</p>  
<p>그래도 현기철의 존재는 숨겼다.</p>  
<p>혹시나 진우가 기분 나빠 할까 봐.</p>  
<p>하지만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.</p>  
<p>"서로의 신뢰를 위해 거짓말은 하지 말도록 하죠."</p>  
<p>안상민은 당황했다.</p>  
<p>'뭐지?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왔나?'</p>  
<p>그렇다면 괜히 잡아떼다가 관계가 아예 틀어질 가능성이 있었다.</p>  
<p>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다.</p>  
<p>'그냥 솔직히 말해야겠네.'</p>  
<p>헌터와 길드의 관계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와 비슷했다.</p>  
<p>지금 당장 계약을 못한다고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면 언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.</p>  
<p>최대한 헌터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.</p>  
<p>그것이 제2관리과의 철칙이었다.</p>  
<p>안상민이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실은 제 부하 직원 한 사람이 더 알고 있습니다. 이건 정말입니다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'역시...'</p>  
<p>생각대로였다.</p>  
<p>혼자서 다 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었다.</p>  
<p>조사에, 감시에, 연락까지.</p>  
<p>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연락 타이밍이었다.</p>  
<p>집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다.</p>  
<p>'어디선가 보고 있다가 연락을 준 거겠지.'</p>  
<p>한시라도 빠르게 만나고는 싶은데 급하게 연락을 하다가 유진호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말이다.</p>  
<p>'그래도 백호 길드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야.'</p>  
<p>아까 반응으로 알 수 있었다.</p>  
<p>5백억 이야기가 나왔을 때.</p>  
<p>안상민은 자기 선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자 크게 당황했다.</p>  
<p>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면 최소한 그쪽에 연락하는 척이라도 해 봤을 거다.</p>  
<p>되든, 안 되든.</p>  
<p>그래서 두세 명 단위의 소규모 팀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었는데, 아니나 다를까 두 명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본인이 실토했다.</p>  
<p>'다행이다.'</p>  
<p>일을 복잡하게 만들긴 싫으니까.</p>  
<p>그래도 두 명 정도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안이었다.</p>  
<p>그냥 두면 앞으로도 계속 귀찮게 굴 게 뻔했다.</p>  
<p>그러니 약간의 경고 정도는 해 둘 필요가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말했다.</p>  
<p>"실은 유진 측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."</p>  
<p>진우의 폭탄 발언!</p>  
<p>안상민은 화들짝 놀랐다.</p>  
<p>"예?"</p>  
<p>그 순간 진우가 스르륵 사라졌다.</p>  
<p>"아니!"</p>  
<p>안상민은 벌떡 일어섰다.</p>  
<p>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지만 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'뭐지?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한 건가?'</p>  
<p>당황스러워하던 안상민은 옆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다.</p>  
<p>"허."</p>  
<p>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났다.</p>  
<p>"돌아보지 말고."</p>  
<p>목소리는 옆에서 들려왔다.</p>  
<p>맞은편에 앉아 있던 진우가 소리 없이 사라지더니 어느새 옆자리로 와서 서 있었다.</p>  
<p>'으, 은신?'</p>  
<p>안상민의 이마가 식은땀으로 젖어갔다.</p>  
<p>'서... 설마...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니겠지?'</p>  
<p>헌터들은 괴물이다.</p>  
<p>헌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.</p>  
<p>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대했다.</p>  
<p>'감시에 미행까지 붙인 게 화근이었나? 처음부터 길드에 경호를 요청하고 왔어야 했나? 아니, 상대가 어느 등급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호를 요청해...'</p>  
<p>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꿀꺽, 침 넘기는 소리까지 엄청 크게 느껴졌다.</p>  
<p>진우가 나직이 말했다.</p>  
<p>"천천히 앉으시죠. 겁을 주기는 싫으니까."</p>  
<p>안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'지금 이 상황도 충분히 무섭습니다만...'</p>  
<p>그리고 시키는 대로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.</p>  
<p>곧 모습을 드러낸 진우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.</p>  
<p>'하긴...'</p>  
<p>겁을 주기 싫다는 말이 이해가 갔다.</p>  
<p>아까 하나만 묻겠다던 진우의 시선은 주변의 공기까지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다.</p>  
<p>이런 상황에서 그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맛봐야 했을 터였다.</p>  
<p>'나름대로의 배려인가.'</p>  
<p>그래도 여전히 무섭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.</p>  
<p>어쨌든 진우가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유진 측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당분간 어떤 길드에도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."</p>  
<p>두 사람은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.</p>  
<p>"그, 그러시군요."</p>  
<p>"그리고."</p>  
<p>진우는 한 템포 뜸을 들인 다음 다시 말했다.</p>  
<p>"저에 대해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."</p>  
<p>원하는 건 간단했다.</p>  
<p>길드에 들어갈 생각이 없고,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.</p>  
<p>안상민은 바로 요점을 알아들었다.</p>  
<p>하지만 아직 궁금한 것이 남아 있었다.</p>  
<p>"저, 저기 그럼 유진호 씨와는 왜 같이 다니는 건가요?"</p>  
<p>"제 개인적인 볼일을 유진호가 돕고 있는 겁니다. 저의 재각성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, 믿을 수 있는 친구라 생각해서 제가 부탁했죠. 그러니."</p>  
<p>진우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.</p>  
<p>"앞으로 어디선가 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안상민 과장님이나 부하 직원분의 책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?"</p>  
<p>이미 진우의 손은 어깨에서 떨어진 지 오래인데 목소리의 무게만으로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.</p>  
<p>'그냥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야.'</p>  
<p>어째서일까?</p>  
<p>진우가 정말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.</p>  
<p>'사람을 볼 때의 내 감은 거의 정확하다.'</p>  
<p>진우는 몇 번의 끔찍한 사고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.</p>  
<p>던전 안의 일은 던전 안에 묻으라고 하던가?</p>  
<p>진우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.</p>  
<p>'거기다 이 남자는 은신 스킬 보유자...'</p>  
<p>은신 스킬은 골치가 아프다.</p>  
<p>은신 스킬 보유자가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으면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뚝딱 해치울 수 있으니까.</p>  
<p>CCTV, 경비, 방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.</p>  
<p>안상민의 이마 옆으로 땀방울이 한줄기 길게 흘러내렸다.</p>  
<p>'은신을 쓸 수 있을 줄이야...'</p>  
<p>뛰어난 능력에 희귀한 스킬까지.</p>  
<p>괜히 유진 쪽에서 3백억을 제시한 게 아니었다.</p>  
<p>'밑지는 장사를 할 놈들이 아니지.'</p>  
<p>두근, 두근.</p>  
<p>안상민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힘겹게 입술을 뗐다.</p>  
<p>"저, 절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. 기철이, 아니 제 부하 직원한테도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."</p>  
<p>비밀 유지는 오히려 이쪽에서 먼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였다.</p>  
<p>소속이 없는 뛰어난 능력자!</p>  
<p>소문을 퍼트려서 쓸데없이 경쟁자를 늘릴 필요도 없었고,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 공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.</p>  
<p>'사실 적으로 돌리기에는 무섭다는 게 제일 큰 이유지만...'</p>  
<p>"믿겠습니다, 과장님."</p>  
<p>한마디를 끝으로 옆자리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졌다.</p>  
<p>안상민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.</p>  
<p>마치 자신만 다른 세계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카페 분위기는 평화로웠다.</p>  
<p>"허..."</p>  
<p>안상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.</p>  
<p>그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뿐.</p>  
<p>현기철이 카페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.</p>  
<p>밖에서 유리 너머의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가 진우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헐레벌떡 달려온 것이다.</p>  
<p>"과장님!"</p>  
<p>안상민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.</p>  
<p>현기철은 걱정스럽게 물었다.</p>  
<p>"어떻게 된 겁니까? 성진우랑은 잘 안 풀린 겁니까?"</p>  
<p>안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담배를 꺼내 물며 대답했다.</p>  
<p>"기철아... 우리 생각보다 더 대박을 만난 건지도 모르겠다."</p>  
<p>이건 꼭 잡아야 한다.</p>  
<p>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.</p>  
<p>다행히 아직 기회는 있었다.</p>  
<p>그때 현기철이 안상민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.</p>  
<p>"...저기, 과장님."</p>  
<p>안상민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응?"</p>  
<p>현기철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귓속말을 건넸다.</p>  
<p>"여기 금연 구역입니다."</p>  
<p>안상민의 손 안에서 담배가 구겨졌다.</p>  
<p>"이 새끼가 진짜..."</p>  
<p>\*\*\*</p>  
<p>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진우는 상태창을 불러왔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39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늑대학살자</p>  
<p>HP: 7,229</p>  
<p>MP: 683</p>  
<p>피로도: 0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97 체력: 59 민첩: 97 지능: 51 감각: 81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20%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, 상급 단검술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2, 살기 Lv.1, 은신 Lv.1, 급소 찌르기 Lv.1</p>  
<p>[착용한 아이템]</p>  
<p>파수꾼의 목걸이(A)</p>  
<p>'이러니 눈치채는 사람이 있을 만도 하지.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